



NEW SPIRIT


Inho & Yeonji Park
 Faith Academy Mindanao
 PO Box 81305
 8000 Davao City, Philippines
 ih.park@gmail.com
 agnes.yjpark@gmail.com
digos.weebly.com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3년 7월

선교편지 제 56 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국과 한국 방문을 건강하게 잘 마치고, 저희를 한결같이 품어 주는 필리핀 민다나오 섬으로 다시 돌아 왔습니다. 오랜만에 미국과 한국에서 보낸 지난 한 달여간의 시간을 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고, 풍성한, 정말 분에 넘치는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20여년이나 살았던 고향과 같은 미국 방문임에도 불구하고, 2년여만의 방문이라서 그런지, 도착하는 날까지 설레임과 함께 여러가지 염려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 모두들 바쁘게 사는 것을 잘 아는 까닭에, 저희들의 방문으로 인하여 공연히 '민폐'를 끼치는 것은 아닌지,... 또한 저희들은 반가움과 벅찬 감격으로 다가가는데, 형식적인 냉랭함으로 맞이해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선교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잘 나눌수 있을런지,.....


그런데 이런 모든 염려가 정말로 불필요한 기우였음을, 미국에 도착한 첫 날부터 깨닫게 되었습니다. 핸드폰을 임시로 개통한지 몇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화 번호를 알았는지 반가운 지인들로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하고, Email로도 저희의 일정을 확인하며 당장 만나자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사랑하는 아들과 오랜만에 오붓하게 식사 할 기회를 갖기 힘들 정도로 많은 분들을 만나서 그동안의 밀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 6시 30분에도 불러 주어서 조찬을 같이 하기도 하고, 밤 10시경에 불러 주어서 밤참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먼길을 오셔서 만나 주신 분도 계시고,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하신 분이 5년만에 연락을 해 주셔서 오랜만에 반가운 만남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목장 예배에 불러 주셔서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흠뻑 젖게 하시고, 모두들 바쁜 중에도 여러 가정에서 초대를 해 주셔서 분에 넘치도록 풍성한 대접을 받기도 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저희가 잘 지내는지 쉬지 않고 전화를 해 주신 분도 계시고, 바쁜 중에도 차가 없는 저희를 위해서 기꺼이 먼길을 돌아 가 주신 분도 계십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과 미국 방문을 준비 하면서, 저희들 머리 속에는 아주 즐거운 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생활 하면서 오랫동안 맛 보지 못한 음식을 마침내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곳 선교지에서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비슷한 음식을 사먹기도 하지만, 제 맛이 나지 않아서 항상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매일 매일 음식 리스트를 점검하며, 새로운 음식으로 채워 넣고 입에 군침이 도는 즐거운 상상을 합니다. 정통 자장면과 짬뽕, 크림 치즈를 잔뜩 바른 베이글과 소가 가득한 단팥빵, 진한 국물의 순두부와 칼국수, 매운 아구찜과 신선한 각종 회, 담백하고 시원한 육수의 냉면과 함께 먹는 왕만두, 냄새만 맡아도 즐거운 불고기와 갈비, 해산물과 토마토가 가득한 이탈리아 음식, 향기로운 진한 커피, 달콤한 참외와 과즙이 가득한 그레이프 푸룻,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먹고 싶어했던 음식뿐만 아니라, 오래되서 미처 생각지도 못한 음식까지, 더 먹고 싶은 음식이 생각 나지 않을 정도로 다양하고도 풍성하게 대접을 받게 하셨습니다. 한 달만에 허리 사이즈가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할 정도로 아주 맛나게 잘 먹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선교를 위해 사용하시며 다양한 모양으로 후원금과 물품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받는 저희가 부끄럽지 않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식들에게서 받은 용돈을 격려의 카드와 함께 주신 1선교회 어르신도 계시고, 아들이 직장에서 승진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어머니께 드린 용돈을 선교비로 주신 분도 계십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팁을 모아 온 상자를 열어 보지도 않고 주신 분도 계십니다. 새벽 기도 후에 눈을 떠 보니, 옆 자리에 있는 성경책 위에 '하나님께서 박 선교사님께 선교비를 드리라고 기도 중에 말씀하셔서 놓고 갑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선교비를 주신 분도 계십니다. 한 마음으로 선교비를 모아서 주신 목장과 그룹도 있었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좋은 물건을 고를수 있도록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제가 꼭 필요로 하는 물품을 가장 좋은 것으로 사주신 분도 계십니다. 선교지에서는 구하기 힘든 좋은 커피도 주시고, 마른 반찬도 주시고,....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 보잘것 없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미국과 한국 방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교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여러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큰 힘을 얻어 새로운 각오로 사역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거의 습관처럼 꼼꼼하게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모든 대소사를 빠짐없이 '기록'하는 일입니다. 처음 지나가는 이 길이 감히 작은 '선교 행진'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날마다 기록을 정리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도저히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도 빠짐 없이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채워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으로 대신 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 116:12)

 많은 학생들의 기대 가운데 토요 학교 3년차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해에는 20명, 작년에는 40명의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시작한 제자 훈련이, 장학 프로그램과 연결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차 40여명의 학생들이 제자 훈련을 지나는 가운데, 감사하게도 학생 자신들 뿐만 아니라, 학교와 가정에서도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기도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25명이 대학으로 진학하는 놀라운 일을 직접 체험함에 따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새롭게 시작하는 토요 학교에 대하여 벌써부터 많은 관심과 문의로 학생들의 눈이 초롱초롱 합니다.



3차 토요 학교 개학 첫 날 (마띠 고등학교)

이전보다 많은 학생들이 등록 할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토요 학교 첫날에 저희가 감당할 수 인원을 훨씬 초과한 112명의 학생이 참석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첫날부터 학교 내에 모든 인원이 함께 있을 만한 교실이 없어서 많은 혼잡함이 있었습니다. 마띠 고등학교 전교생의 약 ¼이 등록을 한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알고 왔는지, 11명의 타 고등학교 학생과 2명의 성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인 중의 한명은 거의 한 시간 정도 떨어진 먼 지역에 살고 있는데, 하루 전날인 금요일 저녁에 디고스에 있는 부모님 집에 미리 와서, 토요일에 있는 제자 훈련을 참석하고 다시 돌아 가겠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지가 이미 오래 되었지만, 훈련을 잘 마치고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꿈입니다. 제자 훈련에 대한 저희의 목표는 주어진 '모든 방법'을 동원한 '복음 전파' 이지만, 이제 새롭게 참가하는 학생들은 외국인인 저희가 복음화를 위해서 동원하는 '방법과 혜택' (장학금, 한국어 교육, 학용품, 간식,...등)에 더 많은 관심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12명이나 되는 많은 학생들을 상대로 '제자 훈련'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의 역량으로는 많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로운 학생들의 얼굴을 익히고, 이름을 기억하는 일도 힘겨워 보입니다. 어쩌면 한 자리에 모여서, 주의를 집중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일조차도 어려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그동안 제공했던 각종 교재, 학용품, 간식등도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었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될 형편입니다. 하지만 우선 학생들을 두 반으로 나누어 저와 제 아내가 역할을 분담하여 학생들과 좀 더 친밀하게 관계를 넓혀 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새롭게 현지 찬양 전문 사역자를 저희 프로그램에 합류하게 하여, 현지 정서에 맞게 학생들에게 찬양과 울동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상황은 어려워 보이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를 풀어 가려고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저희들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심을 믿습니다.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지만, 이 부족함을 채우시며,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도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궁금함으로 눈을 반짝이며 저희를 바라보는 학생들의 모습 속에, 학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새롭게 시작하는 제자훈련(?)을 통하여 많은 학생들이 주님을 새롭게 만나며, 또한 어두운 영에 눌린 학생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어 활짝 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바랍니다.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옵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대하 6:27)**

Thank You 한국과 미국 방문을 마치고 스파마스트 대학(SPAMAST College)에 장학생으로 진학한 학생들을 만나기 위하여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랜만에 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거의 한달 동안 선교지를 떠나 있으면서 몸은 바빴지만, 사실 머릿 속은 온통 대학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학생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었습니다. 마치 시골 학생이 도시에 처음 올라 와서 당황하는 모습처럼,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허둥지둥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눈에 선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두려움에 질려서 벌써 낙오한 학생은 없는지..... 그런데 막상 학생들을 만나고 보니, 그동안의 염려가 너무도 허탈할 정도로 학생들이 대학에 잘 적응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학점에 대한 의욕도 충만해서, 토요일에 개설하는 특별 과목에도 장학생 전원이 지원하여 열심히 따라 가려는 모습이 너무도 보기 좋았습니다.



장학생들과 함께 (스파마스트 대학교)

또한 음악과 춤에 재능이 특출했던 3명은 대학 합창/무용단에 지원을 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2명은 파트타임 일자리를 얻어서 용돈을 벌고 있고, 그리고 한 녀석은 벌써 같은 학과에 있는 여학생을 사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치 소낙비를 풍성하게 먹은 싱그러운 나무들처럼, 학생들의 얼굴이 얼마나 밝아 졌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대학생 제자 훈련

매주 토요일 12시, 오전 수업을 마친 학생들과 함께 대학 식당에서 점심을 맛있게 먹은 이후에, 대학교 내의 한 강의실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학 학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마침내 복음의 문이 조금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때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New Spirit Mission'이라는 기독교 선교 단체로 학교에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대학생들 향한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강의실에서 'Facing the giants'라는 영화를 학생들과 같이 보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 4:13)'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강의실 주변에 있던 대학생들이 호기심으로 저희들을 주목하고 있는 시선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학원 사역이 정착이 되는대로 기존의 장학생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의 폭을 넓혀서 재학생 속으로 깊이 들어 가려고 계획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열어 주실지 얼마나 가슴이 설레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학원 사역을 통해서 잃어버린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 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시 3:8)

기도 요청

1. 디고스 지역의 교회 건축을 위하여
2. 마띠 고등학교 장학 프로그램을 위하여
3. 스파마스트 대학 선교를 위하여
4. 장기 체류를 위한 비자 변경을 위하여
5.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후원을 위하여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